

논문접수일 : 2020.9.16

심사일 : 2020.10.9

게재확정일 : 2020.10.27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 중요도, 학습경험, 지도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wareness of Color Education i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Design

– With priority given to importance, learning experience and teaching experience –

주저자 : 김 하 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Ha-young Kim

Visual Desig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교신저자 : 현 은 령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 일반대학원 러닝사이언스학과 인지정보디자인전공

Hyun Eunryung

Dept. of Applied Art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 Dept. of Learning Science,
Major in Cognitive Information Design,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pariosa@hanyang.ac.kr

www.kci.go.kr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내용

2. 이론적 배경

- 2.1. 색채교육의 개념과 역사
 - 2.1.1. 색채교육의 개념
 - 2.1.2.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역사
- 2.2. 우리나라의 색채 교육현황
 - 2.2.1. 공교육수준에서의 색채교육
 - 2.2.2.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색채교육 사례

3.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인식

- 3.1. 조사대상 및 시기
- 3.2. 조사도구
- 3.3. 인식 현황
 - 3.3.1. 중요도
 - 3.3.2. 학습경험
 - 3.3.3. 지도경험
- 3.4. 분석 결과 요약

4.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논문 요약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색채교육은 감성적 접근은 미술교과에서, 물리적 접근은 과학교과에서 각각 연관된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 색채에 대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색채에 관해 배경 지식과 이론적 기초지식 인지 편차가 적은 유·초·중등학교에서는 색채교육의 방향이나 질적 요구수준을 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수월하나,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는 색채교육에 대한 학습자간 편차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계획 및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색채교육에 대한 부족 요인과 보완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도·학습경험·지도경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색채교육과 대학, 대학원 수준에서의 색채 교육 사례를 살펴 보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인 색채교육인식 현황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디자인전공 석사졸업 이상의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색채교육의 중요

도, 학습경험, 지도경험 여부를 묻는 기본문항과 추가 설명을 하는 세부 오픈문항 등으로 구성된 총 14개로 이루어진 면접가이드로 인터뷰되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디자인전공 대학원생들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은 색은 사물을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모든 사물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므로, 색에 대한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대상자들은 색에 대하여 대학 재학시절 학습한 경험이 있으나, 실기 교육 경험에 대한 수강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색채이론에 대해서는 감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실행되어지는 현행 전공 색채수업이 보다 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색채 이론 수업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며, 실기에서는 실무까지 이어지는 색채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한 학기(15주차 혹은 16주차)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수 배정이 부족하며, 개설된 색채교육관련 강좌 또한 컬러리스트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시험의 틀에 맞춘 규격화된 수업으로 진행됨을 아쉬워했다. 교재 또한 컬러리스트 대비 이론서와 기출문제 해설집으로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관련 문헌의 출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감성 형용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이론과 다양한 실기가 반영된 색채교육으로의 변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색채교육의 변화 요구의 시점에서 새로운 색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색채교육, 색채디자인, 색채

Abstract

Background Currently, Korean color education lacks a convergent and systematic approach to color, as emotional approaches are emphasized only in art subjects and physical approaches are emphasized in science subjects. Moreover, in groups such as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here there is little deviation in background knowledge and theoretical basic knowledge in color, there is relatively no difficulty in setting the direction or quality demand level of education, but in related majors of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ere are so many variations between learners of color education,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professors to plan and implement edu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draw up the deficiencies and complementary factors for color education in our country and suggest systematic ideas to improve them.

Methods The problems with color education in our country

were grasped based on research reports presented by relevant institutions and earlier studies, and the revised 2009 and 2015 curriculum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state of color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in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To determine awareness of color education that was the major content of the study, 10 graduate students who majored in design and art and who acquir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were investigated in September and October, 2019, using an inventory that consisted of 14 items that included basic items about experience and detailed open-ended ones which called for additional explanations.

Resul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considered learning about color very important because color was an integral element to recognize things and because it was an important thing that could be seen in everything at the same time. Second, they had experience of learning about color in college but they told they didn't have enough experience of taking practical courses. Concerning color theories, they pointed out that current major classes which provided an emotional and abstract understanding should be complemented by more physical and objective theoretical classes. In terms of practical education, they commented that existing education should change into the kind of education that could lead to practical work. Finally, they told it's a shame that the number of classes assigned to a semester(15 or 16 weeks) isn't sufficient enough to bring about such a change, and that many existing courses related to color education aim at preparing for certification acquisition such as that of colorist and eventually are standardized to ensure passing exams. In addition, they perceived that the publication of various related literatures is necessary as many textbooks are books on theories required for becoming a colorist and commentary books on past exam questions.

Conclusion There are rapid changes in people's emotional adjectives of looking at the world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ccordingly, a shift into color education that reflects advanced theories and involves various practical work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right direction for new color education at this point of time where the change of color education is demanded.

주제어

Color education, Color Design, Color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색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 전반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시각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는 형태와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창작활동에 기초시각 이미지가 된다(이정아, 2011). 따라서 현대 디자인 범위의 확산에 따른 디자인교육의 변화에서 색채교육의 비중은 더욱 더 중요하게 다루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색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정수(2010)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색채교육관련 학습은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으로 인해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원초희(2018)는 현행 미술 교과서에서 색채교육 영역을 작은 소단원 정도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방법이 색채의 성격이나 정의 등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정도의 이론 주입식 암기내용으로 이루어져 학습자에게 흥미와 학습동기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송지성과 김지연(2014, p.357), 이현진과 황승현(2017, pp.20-21)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다.

색채교육은 타 학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통합적인 노력을 요구 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색채교육은 감성적 접근은 미술교과에서 물리적 접근은 과학교과에서 교과별로 연관된 부분만 강조하고 있어 색채에 대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주성·심복기·이동원(2006, p.2)의 연구에서는 색채에 관한 배경 지식과 이론적 기초 지식 인지의 편차가 적은 유·초·중등학교와 같은 집단에서는 교육의 방향이나 질적 요구수준을 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은 없으나,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는 색채교육에 대한 학습자간 편차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 교수자의 입장에서 교육계획 및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재 컬러리스트 국가자격증 소지자 등 색채관련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그에 대한 관심도 날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색채 활용 기초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색채교육의 체계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 색채교육에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색채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석사 졸업 이상자인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도·학습경험·지도경험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색채교육에 대한 부족 요인과 보완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도·학습경험·지도경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탐색에서는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2009 및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의 색채교육과 대학, 대학원 수준에서의 색채 교육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인 색채교육 인식 현황은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교육현장이나 대학에서 색채학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서울 및 수도권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디자인전공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령은 모두 30대이며, 성별은 여 8명, 남 2명이다. 조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인터뷰 가이드를 구성한 후,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디자인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검토 및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문항 구성은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성 2문항, 학습경험 2문항, 지도경험 4문항 총 8문항에서 경험 여부를 묻는 기본문항과 추가 설명을 하는 세부 오픈문항, 총 14개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지는 색채교육에 대한 보완 요소를 확인하고 색채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색채교육의 개념과 역사

2.1.1. 색채교육의 개념

색채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색을 조형요소로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동안 물리

학자들은 색과 관련하여 색인지의 기초가 되는 빛인지에 대한 원리를 밝혀내었으며, 화학자들은 물감과 페인트 등 색채를 산업이나 생활현장에 도입하는데 혁신적 개발을 이루어냈다. 또한 생리학, 심리학, 안과학 등에서도 색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색채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왔다(김지혜, 2008). 이는 색채교육의 교육적 의미가 소수의 생산자인 예술가 육성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색채를 시각적, 조형적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성장과 전인적 인간 형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장준식, 2008). 그러므로 색채교육은 색채를 통하여 학생의 인지와 정서, 창의성을 통합적으로 발달시켜 조화로운 인격체로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색채교육의 다양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첫째, 색채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상이다. 우리는 색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먹으며 그 속에서 행동한다. 둘째, 색채교육은 생활의 예술이다. 색채만큼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을 가진 예술은 없다고 할 만큼 우리의 주변의 모두 색채의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색채교육은 사회적 과정이다. 색채교육은 가장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의 실제 생활을 운택하게 해주는 예술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색채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다. 넷째, 색채는 소통의 수단이다. 색채는 생활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소통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색채교육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조은정, 2011). 여섯째, 색채교육은 미지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색채 교육은 생산자, 소비자, 환경, 사회, 문화, 색채 자체에 대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은 가능한 세계로부터 출발한다. 일곱째, 색채교육은 고도로 복잡하고 세련된 숙련과정이다. 색채교육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 익혀야 하고 실습해야 하는 익숙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색채교육을 배우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유현석, 2009).

이러한 색채교육의 정의로 색채 교육이 이론적인 이해와 개념적인 실습의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연계가 되고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습방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미술교육이 인간의 창조력을 높인다고 한다면 색채교육은 창조력에 조화능력을 더하게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색채교육은 인간의 자아표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사물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며 창의력과 질서인식을 키

우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한다(이정아, 2011). 이렇듯 색채교육은 모든 사물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계한다. 따라서 색채는 인간의 노력이며, 문명의 실체가 색채교육의 세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1.2.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색채교육은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학문의 근거 아래 색채교육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 무렵이다. 그 당시 미술교육은 기술을 전수하는 식의 모방주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현대적 미술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교사 중심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이 발표되고, 1955년 교육 과정령이 공포되어 창조적인 미술교육이 실행되면서 초등학교 꾸미기 영역에서 색채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었다(윤진석, 2018). 이러한 우리나라 제 1차부터 2015교육과정에서의 색채 교육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색채교육 특징

교육과정	중심 구성
제1차 (1954년~1963년)	• 색채감, 배색 기능, 배색 표현
제2차 (1963년~1973년)	• 꾸미기영역 : 색채 배합 • 디자인영역 : '배색 연습'
제3차 (1973년~1981년)	• 디자인 영역에서 색채 지도요소가 매우 간략화, 활동 위주 기술
제4차 (1981년~1987년)	• 중,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에서 디자인 영역이 '꾸미기와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개정.
제5차 (1987년~1992년)	• 색의 구별과 색채 체험과정 제시
제6차 (1992년~1997년)	• 색채지도 계획의 위계성 마련 (색의 느낌 생각, 색의 성질알고 꾸미기, 색 성질 이용하여 꾸미기 등)
제7차 (1997년~2009년)	• 색채교육의 순환적 구조 제시 (자연에서표현과정 → 조형작품에서 색채의 아름다움 느끼기)
2009 개정 (2009년~2015)	• 학년별 미술교과서 통합으로 수업 시수나 학년별 구분이 없어짐. • 학년별 영역 설정이 연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구성 • 색채 영역의 경우 단원과 학습내용은 여전히 부족
2015 개정 (2015~현재)	• 영역별 핵심 개념을 제시하여 단순 구성요소가 아닌 수행방식과 정으로 구조화하는 형식 • 고등학교 색채교육의 경우, 색채를 다루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음 (색의 기본원리와 이해 생략, 보조적인 역할로 제시, 혹은 생략)

출처: 정지연(2017)

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색채교육은 양적으로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색채가 갖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과는 동떨어지고 디자인 표현을 위한 이론적, 혹은 기술적 교육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편타당한 지식을 갖고 색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사회병화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비체계적이고 비과학적인 색채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이나레, 2012). 또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색채교육은 기본적인 교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제한적이다. 색채의 이해뿐만 아니라 체험과 활용을 통한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실습용 교재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정아, 2011).

미술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 된지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미술교육사 및 미술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원초희, 2018). 미술교육 관련 문헌에서도 미술용어, 미술교육이론, 미술교육 평가 등의 개념이 새로 상이하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색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미술품과 예술정신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며 현대 사회의 미의식을 반영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초, 중, 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순수미술 분야에 집중된 공교육 내에서 미술 교과 내에서의 디자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응용적 관점에서의 색채교육 또한 중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2.2. 우리나라의 색채교육 현황

2.2.1. 공교육수준에서의 색채교육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 1949년에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이후로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공통적인 기준을 개발해 왔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이트, 검색일 2019.09.26) 이러한 국가 교육과정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색채교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체 혹은 축소, 무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색채교육 관련 단어 제시 횟수가 줄어들고 관심도 또한 줄어든 것이다. 색채 관련 단어 제시 횟수는 제 3차 교육과정 이

후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해당 내용의 변화 또한 미비하다. 또한 관련 단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는 1955년부터 가르쳤던 내용을 현재에 와서도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장건우, 2017).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미술교육은 다양한 출판사에서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로 초·중등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기본적인 성취기준과 총론을 교육과정의 틀로 하고 있지만 교과서마다 내용의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 단계의 색채교육에서는 색채 원리와 이해 내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 요소가 포함 되어 있는 교과서의 단원은 색의 3속성과 주목성, 명시성 등의 특성을 활용한 작품을 표현하고 감상하고 있는 반면(류재만 외, 2018, pp11-15), 색채관련 내용 자체가 없는 교과서도 발견할 수 있다(김정희 외, 2018).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색채관련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에도 색채의 속성과 이해적 측면의 기본적인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단순히 채도, 명도 등의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위주로 열거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교과서의 색채 교육은 아동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색채 교육 보다 '개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한 지적 접근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학년의 교육 내용 체계는 '난색의 한색, 유사색과 반대색, 명도와 채도의 변화, 목적에 맞게 배색' 등 색의 원리나 체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학생들은 색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하게 된다(박은혜, 2010). 중학교의 경우 색상, 명도, 채도, 색상환,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혼합, 계시대비, 색상대비, 명도대비, 채도대비, 보색대비, 진출 후퇴, 명시성, 주목성, 무게감, 강도, 색상차이 등 18개 개념의 설명이 잘되어 있으며 용어개념이 초등학교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연계성은 용어 중심으로 살펴본 색채 단원에서의 학습 격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혜연, 2012). 이것은 색채를 생활 혹은 산업에 응용하기 어려운 주입식 강의, 수업 진도 위주의 교육방식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색채를 경험적, 감성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색채를 활용 할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거나 감상할 때 단편적인 지식과 감각으로 해석하게 하는 위험성을 지닌다(원초희, 2018). 2009개정교육과정 개정에서 학년별 미술교과서의 통합으로 수업 시수나 학년별 구분이 없어지면서 학년별 영역 설정이 연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술과 생활의 관계, 활용 등을 넣어 학습자들이 개념

과 적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색채관련 영역의 경우 단원과 학습내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조은정, 2011).

이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미술 교과에서는 영역별 핵심 개념을 제시하여 단순 구성요소가 아닌 수행 방식과정으로 구조화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체험영역에서는 자신과 대상을 '지각'하고 지각한 것을 '소통'하며, 생활에서 활용하거나 타 영역이나 활동, 분야 등과 융합하는 '연결'을 고려하였다. 감상영역에서는 작품 감상을 위해 필요한 미술사적 지식 및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한 이해 및 작품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비평과 과정, 수행, 기능을 반영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색채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색채를 다루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색의 기본원리와 이해는 생략되고 단원에서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양으로 간단한 개념제시와 보조적인 역할로서 제시, 혹은 생략되었다(윤진, 2018). 또한 대부분 색채 단원의 제재가 색의 의미나 기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의 색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고보경, 2017).

2.2.2.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색채교육 사례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미술 및 디자인전공 관련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색채 교육은 융합 학문인 색채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전공기초 영역으로서 색채조형 및 색채과학, 색채문화, 색채마케팅 등 학제적 교과를 편성하고 있다. 전공 심화 영역으로는 제품·환경디자인 분야의 색채디자인 및 색채계획의 방법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연구 지원뿐 아니라 색채디자인 실무를 교육 과정에서 경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검색일 2019.09.30) 디자인 및 예술 뿐 아니라 미학, 심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색채 연구는 색채 디자인의 개요, 색채디자인 요소, 색채 디자인 영역, 색채디자인의 변천과정, 감성 색채, 색채 인지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색채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실습하기도 한다.(홍익대학교 대학원, 검색일 2020.10.09) 또한 색채 기획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색채의 중요성 및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학습하고 디자인 전개에 있어 기능적 측면, 조형적 측면, 전략적 측면에서 색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도 있다.(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검색일 2020.10.09) 하지만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색채학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전혀 없는 학교도 존재한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학과, 검색일 2020.10.14) 또 다른 사례에서는 디자인 관리를 위한 이론과 사례분석을 통한 체계적 개발 과정 연구 등 다양한 디자인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지만 색채학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은 찾아볼 수 없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검색일 2020.10.30)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 디자인관련 대학 및 대학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대변하긴 어렵지만, 이처럼 학교마다 색채교육과정은 큰 차이를 보인다.

색채학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한 학교의 경우, 학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요내용은 전통적인 색채의 전반적인 기초 이론을 다루며 색채 적용 실습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색채교육의 문제점은 색채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의 기술 습득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이현진·황승현, 2017, pp.20-21). 이는 색채를 심도 있게 계획하고 구성하여 적용하는 심도 있는 색채교육이 되기에는 교육목적에서부터의 한계점을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활용되어지는 교재는 '디자인을 위한 색채(2019)', 색채학의 이해(2009), 컬러리스트 필기 기사 산업기사(2019),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2016), 색채와 디자인(2012), 나의 삶 속의 색 색채학(2019), 쉬운 색채학(2011), 색채학 강의(2010), 색채학(2018), 디자인&웹컬러 선택을 위한 색채학(2012)' 등으로 비교적 색채이론과 관련된 교재선택은 그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색채교육 실기에 관련한 교재를 살펴보면 컬러리스트 시험 대비용 서적(김유선·이기영, 2020), 기초 활용에 치우친 형식적인 실습위주의 정형화된 답을 요구하는 실기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주성, 심복기, 이동원(2008)은 대학에서의 색채교육은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이수교육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체를 비롯한 사회에서는 색채와 관련된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고 일반인들의 색채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색채 적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색채 실기교육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인식

3.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도·학습경험·지도경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색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7일까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색채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디자인전공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색채교육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조사 대상 및 시기

대상인원	10명(남 2명, 여 8명)
연 령	30대
대상자격	디자인전공 석사 졸업 이상
조사시기	2019년 9월 16일-10월 7일
분석내용	색채교육 중요도·학습경험·지도경험

대상자를 석사이상자로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자가 미술 및 디자인대학 현장에 출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조사도구

본 인터뷰는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이 크게 일상생활에서의 색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 색채교육에 대한 본인의 학습경험 만족도, 색채교육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지도경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인터뷰 가이드를 구성한 후,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디자인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해 검토 및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가이드 문항구성은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성 2문항, 학습경험 2문항, 지도경험 4문항 총 8문항에서 경험여부를 묻는 기본문항과 추가 설명을 하는 세부 오픈문항,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 3] 참조.

[표 3] 인터뷰 가이드 문항 구성

영역	질문	내용
중요도	1-1	일상생활에서 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2	그에 따른 이유는?
	2-1	색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2	그에 따른 이유는?
학습경험	3-1	색채에 대하여 학습 한 적 있는가?
	3-2	어떤 방식으로 색채 학습을 하였는가?
	4-1	색채 학습 시 만족도는 어떠하였는가?
	4-2	그에 따른 이유?
지	5-1	색채에 대하여 교육을 한 적 있는가?

도 경 험	5-2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가?
	6 6-1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였는가?
	7 7-1	목표에 맞게 지도되었다고 생각하는가?
	7-2	그에 따른 이유?
8 8-1	지도 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3.3. 인식 현황

3.3.1. 중요도

우리나라 디자인전공 대학원생들의 색채교육 중요도 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표 4] 중요도관련 문항 인터뷰 정리

대상	질문1		질문2	
	1-1	1-2	2-1	2-2
A	○	모든 사물을 볼 때 색을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	색은 일상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B	○	-사회 속에서 색으로 인지하고 행동 -부가가치 창출 -개인의 정체성상징	○	-색채를 통해 감정과 심리 조절 가능 -색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익을 창출해내는 수단
C	○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요소	○	감수성이나 디자인적 감각 개발 가능
D	○	일상의 사물, 공간 등의 색채가 균형 잡히고 조화가 잘 되어 있다면 심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줄 수 있음	○	체계적인 이론으로 색을 공부하여 일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E	○	-색은 사물을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사물에서 볼 수 있는 것임 -사람은 '색'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삶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색이 주는 느낌이나 기본적인 활용방법은 모두가 알아야 함
F	○	사람들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끼침	○	정보전달 시에는 색이 주는 의미가 매우 명확하여야 하므로
G	○	색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	○	색의 기능, 배색에 따른 학습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해줌
H	○	동일기능의 서비스 및 제품이 있다면, 색의 차이가 차별화 요소가 됨	○	어린이들에게 색채교육은 창의력과 사고력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남
I	○	-색채심리가 일상생활과 중요하게	○	색을 공부할수록 일상의 색이 보임

		연관되어 있으므로		
J	○	일상생활에서 많은 색이 쓰이므로	○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
총합	10	-	10	-

위의 [표 4]에서 살펴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일상생활에 있어서 색과 색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색은 사물을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요소인 색은 체계적인 이론으로 학습하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색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3.3.2. 학습경험

우리나라 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학습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참조.

[표 5] 학습경험관련 문항 인터뷰 정리

대상	질문3		질문4	
	3-1	3-2	4-1 (5점 만점)	4-2
A	○	학부수업	5	이론적인 색 이해
B	○	학부수업	4	자기만족
C	○	학부수업	5	자기만족
D	○	학부수업	3	실생활에 접목의 실무교육은 없었음
E	○	독학	3	교수자 입장에서 이론 중심 학습 (일상에서 접하는 색채 활용사례 학습이 부족하여 흥미를 느끼기 어려움)
F	○	독학/학부수업	5	자기만족
G	○	학부수업	5	자기만족
H	-	-	0	-
I	○	자격증 (온라인 수강), 학부수업	5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성취감
J	○	학부수업	5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알맞은 색감을 찾을 수 있게 됨
총합	10		4.5 (5점 만점)	

위의 [표 5]에서 살펴보면 인터뷰 대상자 10명 중 7명이 학부재학시절, 대학에서 색채관련 수업을 수강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혹은 교수자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강이나 독학으로 학습을 보완하고 있었다. 특히 1명은 현재까지 색채관련 교육과 지도 경험이 모두 없다고 답하였다. 색채교육경험에 대한 아쉬운 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을 하였지만 실생활에 접목하는 실무적용 관련 학습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론중심의 색채 교육은 초기에는 색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지만 학습경험이 누적될수록 흥미도가 하락하고, 색채 이해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여 학습 난이도를 높인다. 따라서 색채교육은 이론과 실기 영역을 독립적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하나의 활동 안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학습되어야 한다(한국색채연구소, 2012). 결과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색채 활용이 접목할 수 있도록 실무까지 이어지는 색채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하였다.

3.3.3. 지도경험

우리나라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의 색채교육지도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참조.

[표 6] 지도경험관련 문항 인터뷰 정리

대상	질문5	질문6	질문7	질문8
		5-1 5-2	6-1	7-1 7-2
A	○	이론 + 실기	미달성	- 관련 학습 경험 없이 교수자로서 학습자 이해 어려움 - 실기교육 경험 부족
	4년제 대학생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요구했지만 자격증 미소지라 자신감이 떨어짐	
B	○	○	달성	- 색 감각을 익히기보다는 자격 시험에 대한 틀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
	학원 수강생 (관련학과 졸업)	컬러리스트 교육 과정	컬러리스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예행과제를 다양한 자료를 접목하여 준비함	
C	○	이론 + 실기	달성	컬러 관련 매체가 부족
	전문대 학생		색에 대한 인식 함양	
D	-	-	-	-
	-		-	
E	○	이론 + 실기	미달성	컬러리스트 시험 이론수업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어
	4년제 대학생		색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색이 주는 영향력과	

			느낌에 대한 객관성을 찾아 보는 수업	려운 이론적 내용에 치우쳐져 있었음
F	○	이론 + 실기	미달성	- 색에 관한 수학 계산, 과학적 용어 학습에는 부족한 시수 - 교재선택 폭 제한
	전문대 학생, 4년제 대학생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이 만족되게 산출	
G	○	이론 + 실기	미달성	- 이론수업 비중이 커 실기 수업에 비해 지루해 함
	중학생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학습내용 전달	
H	-	-	-	-
	-		-	
I	-	-	-	-
	-		-	
J	-	-	-	-
	-		-	
총합	6	-	-	-
	-		-	

위의 [표 6]에서 색채교육을 지도해 본 응답자들은 대부분 목표에 맞게 미달성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수학과 과학적 내용이 많이 나와 교수자 스스로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수학적 계산이나 과학적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 학기(15주차 혹은 16주차)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수 배정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개설된 색채교육관련 강좌 또한 컬러리스트 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색채 감각을 다양하게 느끼는 수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시험의 틀에 맞춘 규격화된 수업으로 진행됨을 아쉬워했다. 교재 또한 다양한 색채의 활용을 다루는 내용보다는 컬러리스트 대비 이론서와 기출문제 해설집으로 치중되어 있음도 지적하였다. 응답자 E의 경우 색채이론 지도를 준비할 때, IRI(Image Research Institute Inc.)(네비버지식백과, 검색일 2020.10.14)이미지 형용사의 색을 자체 조사하여 설문하고 데이터를 통계 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색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색을 감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실행되어지는 현행 미술 및 디자인전공 수업에서 보다 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색채 이론 수업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색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식, 색채교육에 대한 본인의 학습경험 만족도, 색채교육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지도경험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뷰에 참여한 디자인 전공 대상자들은 색은 사물을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모든 사물에서 볼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색이 주는 느낌을 이해하고 색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색에 대한 학습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인터뷰에 참여한 디자인 전공 대상자들은 색에 대하여 대학재학시절 학습한 경험이 있으나,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실기 교육 경험에 대한 수강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책이나 논문으로 공부하는 색은 비교적 이론에 기반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 또는 교수자 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색과는 다른 영역으로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색채 활용이 접목할 수 있도록 실무까지 이어지는 색채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디자인 및 미술 전공 대상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주제의 색채강좌로 진행하고 싶으나 컬러리스트 자격증 시험 이론수업을 기반 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실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색채 실기와는 거리가 먼 수업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최근 대학 및 대학원 디자인교육이 예술적 창의성이나 독창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학생들 역시, 색채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원을 수강해야하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자과 학교의 입장은 색채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교강사들에게 색채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색채교육은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색채교육에서 주를 이루었던 감성적인 색채이해보다는 보다 더 물리적인 측면에서 색을 이해한다. 따라서 색채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측면, 감성과 물리적 측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시점이다.

색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회 전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시각 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색은 모든 창작활동에 기초시각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현재 색채에 관련한 연구는 디자인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 과학,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디자인 교육에서 색채교육은 양적

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디자인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이후 발행된 관련 서적은 새로운 이론서나 실무사례집을 출판하기보다는 매해 실시되는 자격증 기출문제 해설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감성 형용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신 이론과 다양한 실기가 반영된 색채교육으로의 변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뷰사례수가 10명이라는 점에서 다소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색채교육의 새로운 색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http://www.konkuk.ac.kr/jsp/Coll/coll_01_13_01_01_tab02.jsp(검색일 2020.10.30)
- 고보경. (2017). 퍼스널 컬러 시스템을 통한 색채 미술수업이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고등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구권환, 김지현, 김해정, 류재만, 이쌍재, 이현아, 조우리, 홍이진, 홍지수. (2018).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5~6학년군). 서울 : 천재교육.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https://id.kookmin.ac.kr/xe/index.php?mid=id_Curriculum&document_srl=5431(검색일 2020.10.09.)
- 권영걸, 김현선. (2011). 쉬운 색채학. 서울 : 날마다.
- 권혁미, 김정희, 김호정, 박명옥, 이은영, 최선희, 허정임. (2018).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5~6학년군). 서울 : 동아출판.
- 김덕태, 이선하, 전현철. (2012). 디자인&웹컬러 선택을 위한 색채학. 서울 : 일진사.
- 김유선, 이기영. (2020). 컬러리스트 필기 시험 산업 기사 기사 세트. 파주 : 미진사.
- 김의임, 노영자, 박호민, 소미영, 이인숙. (2018).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5~6학년군). 서울 : 지학사.
- 김주성, 심복기, 이동원. (2006). 실내디자인 교육과정의 색채 교육 및 학습자 색채지각능력 현황에 대한 연구: 3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20(4), 1-9.
- 김지혜. (2008).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색채 학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김혜연. (2012). 초·5·6학년과 중등 미술교과서에 포함된 '색채다원' 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공주.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1087&cid=42641&categoryId=42641>(검색일 2020.10.14.)
- 박영순, 이현주. (2012). 색채와 디자인. 파주 : 교문사.
- 박은혜. (2010). 한·일 초등미술 교과서의 색채 교육 내용 비교 연구: 3,4,5,6학년 「색채」, 「회화 및 판화」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현일. (2010). 색채학 강의. 청주 : 서우.
- 방 식. (2018). 색채학. 서울 : 마이스터연구소.
- 배용진, 장성란. (2019). 디자인을 위한 색채. 지구문화, 파주
- 배용진, 장성란. (2019). 디자인을 위한 색채. 파주 : 지구문화사.
- 송지성, 김지연. (2014).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대학 색채교육방향 개선에 관한 연구: 컬러리스트 자격제도와 직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4), 355-366.
- 유현석. (2009). 푸드코디네이션 전공 분야의 색채 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윤 진. (2018). 고등학교 미술교육에서 프로젝트 학습법을 활용한 색채수업에 대한 제안.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원초희. (2018). 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색채교육 개선방안 연구: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이나래. (2012). 네온컬러를 활용한 색채교육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 이정수. (2010). 색채를 활용한 실기수업 프로그램 연구: 7차 개정 중등미술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부산.
- 이정아. (2011). 컬러리터러시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대학색채교육의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향아, 윤지현. (2019). 나의 삶속의 색 색채학. 파주 : 교문사.
- 이현진, 황승현. (2017). 대학 전공 교육에서의 디지털 색채 교과 과정 연구: 디지털 색채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31(3), 19-30.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검색일 2019.9.30.).
<http://artndesign.ewha.ac.kr/artewha/288/subview.do>
- 장건우. (2017). 2009 개정 초등미술교과서 분석을 통한 색채교육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광주.
- 장준식. (2008). 초등미술교육에서 고무판화를 활용한 배색표현의 색채학습 지도방안.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광주.
- 정지연. (2017). 다각적 매체를 활용한 색채수업이 중학교 3학년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영우. (2019). 컬러리스트 필기 기사 산업기사. 파주 : 예문사.
- 조은정. (2011). 2009 개정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기초한 색채교육 연구: 조색을 활용한 학습자료 개발.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 조현주, 이광훈, 정해민. (2016).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서울 : 시그마 프레스,
- 한국민족 대백과 사이트. (검색일 2019.9.2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4550&cid=46615&categoryId=46615>
- 한국색채연구소. (2012). 어린이 색채교육. 파주 : 지구문화사.
- 한기증. (2009). 색채학의 이해. 서울 : 기문당.
-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 (검색일 2020.10.14).
<https://education.hanyang.ac.kr/front/undergraduate/art/dean>
- 현은령 서홍석, 이원희, 김순희, 이현선, 임가영, 조성인, 박현아(2018). 중학교 미술 교과서. 서울 : 리베르교과서.
- 홍익대학교대학원. (검색일 2020.10.9).
<http://www.hongik.ac.kr/contents/www/cor/gradseoul.html>

